



이 범 진 지부장



김 삼 수 고문



박 충 희 지문위원

# 결속과 화합이 으뜸인 안양시 지부

옆집 제과점의 공장장이 퇴근한후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을때  
근처 제과점에서  
자신의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준 미담은  
안양시 지부 회원들의  
친목의 정도를 증명하는 좋은 예이다

흔히 한 집단의 결속력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모래에 대한 비유이다. 그 집단은 흙사 끈기없는 모래와 같아서 결집력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손아귀에 한 움큼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기 일쑤인 것이 모래알이고 발길에 이리저리 채이는 힘없는 존재가 또한 한 알의 모래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하면 모래알처럼 결집력이 강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한알 한알의 모래알이 모여 드넓

은 백사장을 이룬다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포탄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모래의 결집력인 까닭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모래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처럼 회원 상호간의 강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내부 결속은 물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부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고 있는 곳이 있다.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 또 부처가 <천수경>을 통해 이상향으로 지적한 바 있는 안양(安養)과 같은 이름의 안양시 지부가 그곳이다.

안양시 지부(지부장 이범진)가 창립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1984년 3월로 80여명의 업주들이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창립 이전 당시 안양시 제과점업주들은 협회가 설립돼 있지 않는 까닭에 음식업으로 포함돼 있어 제과업과 동떨어진 업무 지침이 많았고 따라서 효과적인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회 창립의 필요를 느낀 안양시 제과업주들은 「업주 친목회」를 결성하고 자금을 모아 역사적인 협회 창립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안양시 지부의 초창기는 자금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무실을 따로 마련할 형편이 안 돼 회

원의 제과점 지하실을 사무실로 사용했고, 여직원의 월급도 서로의 주머니를 털어 줄 정도였다.

이렇게 짧은 협회 역사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 안양시 지부가 180여 회원을 보유하고 튼튼한 토대 위에 지부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된 원동력은 그 무엇보다 강한 회원 상호간의 결집력에 다름 아니다.

지역별로 이사진과 총무가 자신들이 소속에 있는 지역의 회원 결속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단결의 힘이 지부라는 큰 줄기로 모여져 응집된 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단결된 힘은 상호간의 이해와 한가족이라는 공동체의식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안양시지부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지부의 회의 사항이나 중대한 사안을 이사들이 자신의 지역 회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부와 회원이 함께 하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 주고 있으며, 봄·가을에 실시하는 야유회를 통해 친목과 단결을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년 4월 결성돼 3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안양 파우산악회」는 안양시 지



김 안 식 부지부장



송 영 옥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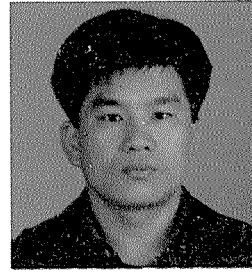
오 정 록 감사



이 호 식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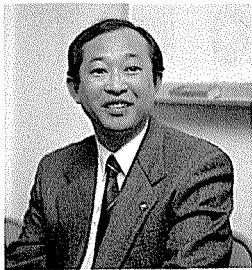
윤 철 영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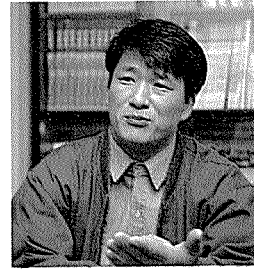
심 옥 섭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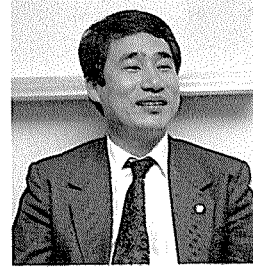
노 연 일 이사



김 영 선 이사



김 태 규 이사



남 평 우 이사



이 철 우 이사

부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로서 많은 회원들이 높은 호응을 보임으로써 친목을 굳게 다지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우산악회는 내부의 친목에 그치는데서 더 나아가 지난 3월 22일 대전시 지회와 동반 산악등반을 가짐으로써 다른 지회·지부와의 유대에도 힘쓰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런 친목과 단결의 결과 안양시 지부의 회원들에게서는 반목이란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27일 안양시 지부가 개최한 「안양 제과인의 밤」 행사에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사실이나, 옆집 제과점에서 공장장이 퇴근한 후 케이크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근처 제과점에서 자신의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준 미담은 회원들의 친목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안양시 지부는 이러한 내부 결속 외에도 대외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앞서에도 알 수 있듯이 대전시 지회와 동반 산악회를 가진바 있고, 작년 12월 「안양 제과인의 밤」 행사에서는 안양 관내의 환경 미화원을 위해 즉석에서 성금을 모아 기탁했다.

또 절기별로 회원들이 만든 빵과 케이크를 들고 「안양 소년원」을 방문, 순간의 실수로 죄

를 저지른 소년들의 교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 군부대를 방문하고 체육대회에도 동참함으로써 지역 유대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안양시 지부의 활동 중 두드러진 특징은 앞서에서 언급한 바 있듯 내부의 결속에 그치지 않고 동업일가의 정신으로 지역간의 친목에 적극 힘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선상에서 볼 때 안양시 지부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획기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물론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기지역 각 지부가 참가하는 체육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체육대회가 남다른 점은 수원, 안산,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제과인이 한 자리에 모여 동업일가의 의식을 확인함으로써 제과업의 발전을 기하고 지역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안양시 지부의 뿌리를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선배는 후배를 이끌고 후배는 선배를 우러러 존경하는 전통을 더욱 고양시킨다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안양시 지부는 회원들에게 지부 소식과 정보를 보다 소상히 알린다는 취지 아래 회보를 발간하는 것을 비롯해 제과점운영

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을 제공하기 위해 세미나 초청, 세미나를 실시하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옛부터 뿌리 깊은 나무는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말이 있다. 열매라는 결과가 있기까지는 튼튼한 뿌리가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해야 하는 만큼 밑바탕이 되는 여건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그런 면에서 볼때 오늘날 안양시 지부가 살아 숨쉬는 활동적인 협회로서 우뚝 서있기까지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며 뿌리 역할을 해 온 원동력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굳은 결집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벌여온 지역간 유대와 사회 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은 안양시 지부라는 나무가 번성한 가지를 통해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영양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다 더 발전된 안양시 지부의 미래를 자신있게 점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안양시 지부가 응집된 결속력을 토대로 보여 온 활발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1] <글 박종선>